영화에서의 음악적 의미와 분석 – 『본 투 비 블루 (Born to be blue)』를 중심으로

Musical Meaning and Analysis in Film – Focusing on the film 『Born to be blue』

이고운, 이승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Gowoon Lee, Seungyon-Seny Le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Sangmyung Univ.

요약

영화 『본 투 비 블루 (Born to be blue, 2015)』는 재즈 애호가였던 로버트 뷔드로 감독이 재즈음악가 쳇 베이커의 청춘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린 영화이다. 『Born to be blue』의 OST에는 쳇 베이커의 곡을 포함한 기존에 대중에게 알려진 재즈 음악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원곡 그대로 영화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영화배우의 보컬로 다시 녹음되고, 장면에 어울리게 원곡이 편곡되어 영화와 조화롭게 사용되었다. 그 중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엔딩 크레디트로 연결되며 사용된 곡 "Born to be blue"는 원곡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편곡을 보이며 곡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영화의 장면 속에서 갖는 곡의 의미와 편곡을 분석한다.

Ⅰ. 서론

고전 영화 속에서 음악은 내러티브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왔으나, 점차 음악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여 극에 참여시키고,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스펙터클로도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 기능은 확장되었다[1]. 영화 속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갈등, 상황을 묘사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2], 인물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선법을 적용하여 작곡한 테마로 등장인물의 특징을 음악으로도 구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으며[3], 최소한의 음악 단위인 리듬으로 등장인물의 다양한 심리를 묘사하는[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영화 『Born to be blue』는 재즈 음악가이자 트럼펫 연주자인 쳇 베이커의 삶을 그린 영화로, 음악을 소재로 하여 마약중독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주인공의 극복과정을 그려냈으며, 기존의 재즈 음악을 영화의 감정 선에 맞춰 편곡하여 각 장면에 어울리게 그려냈다.

Ⅱ. 본론

영화 『Born to be blue』 OST에 수록된 곡은 총 14곡으로 영화를 위해 작곡된 5곡과 기존의 곡이 그대로 사용된 1곡, 기존의 곡이 편곡된 8곡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특징적인 몇 곡을 분석하여 살펴본다.

곡 제목	기존 재즈곡	기능
My funny valentine	o	내재
Over the rainbow	o	외재+내재
Let's get lost	o	내재
Ko-opt	x	내재
Could have been	x	외재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o	내재
Once away	x	외재
Blue room	o	내재+외재
Haitian fight song	o	내재
Bowling alley boogie	x	외재
Go down sunshine	o	외재+내재
Tequila earworm	x	내재
A small hotel	o	내재
Born to be blue	o	외재

1. My funny valentine

콘서트 레코딩을 하는 쳇 베이커가 자신의 깊어진 연주 색을 드러내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장면에 등장하여 기존 쳇 베이커의 곡은 보컬곡이지만 영화에서는 트럼펫 연주자인 쳇 베이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부의 멜로디를 트럼펫으로 연주하여 삽입하였다.

2. Over the rainbow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는 쳇 베이커와 제인의 장면에서 “Over the rainbow”를 녹음하는 스튜디오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음악은 연결되지만 외재적 기능에서 내재적 기능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다.

기존 곡은 오케스트레이션의 밝고 보통 빠르기의 곡이지만, 영화에서는 건반, 드럼, 베이스, 트럼펫의 간소화된 구성과 느린 템포의 트럼펫 위주의 곡으로 표현되었다.

스튜디오에서의 첫 재기 무대를 보러 온 동료 디지 길레스피에게 아직 거칠고 서툴지만 쳇 베이커의 개성이 잘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는 곡으로, 트럼펫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텅잉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였다.

3. Let’s get lost

쳇 베이커의 데뷔 무대 연주에서 연주되는 곡으로, 기존 쳇 베이커의 곡에서는 트럼펫과 피아노가 돋보이지만, 영화 속에서 편곡된 곡은 트럼펫 연주가 더욱 돋보이도록 베이스는 간단한 리듬 위주의 워킹베이스, 피아노는 단순히 리듬감을 주기 위한 컴핑, 드럼은 스윙리듬을 표현하는 정도의 연주로 편곡되었다.

4.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라이벌이자 멘토인 마일스 데이비스 앞에서의 재기무대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랑하는 여인 제인과 마약의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다시 마약을 선택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하는 곡이다. 원곡과의 큰 차이점을 보이는 편곡은 없으나, 장면 속에서 곡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크다. 마약과 제인 사이에서 결국 마약을 택하고 떠나가는 제인을 바라보며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을 부르면서 제인을 떠나보내게 된다.

5. Once away

평화로운 한때를 회상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쳇 베이커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사용된 곡으로, 다른 곡들과 차별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된 곡이다. 긴 리듬을 이용한 고음의 스트링 연주로 평화로운 시절의 회상을 표현하였으며, 환상적인 느낌과 아름다운 한 때를 표현한 곡이다.

6. Born to be blue

결국 끊을 수 없는 마약으로 인해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주인공의 결말을 알려주는 곡으로, 재기 무대에서 선보인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연주 후 다음 곡 소개로 “Born to be blue”를 외치며 이 후 다시 마약에 빠져 생을 마감한 주인공의 삶을 설명하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끝나는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었다.

기존 쳇 베이커의 “Born to be blue”는 보컬 곡으로 빠른 템포로 표현되었으나, 영화 속에서 편곡되어 나타난 “Born to be blue”는 느린 템포의 블루스 장르로 우울함을 더욱 극대화 하여 나타냈다.

Ⅲ. 결론

영화 『Born to be blue』는 쳇 베이커의 연주로 유명했던 곡들을 재편곡하여 장면에 맞게 그려냈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나타난 곡으로 인해 쳇 베이커를 연상하고, 장면에 따른 감정과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영화 속에서 사용된 음악은 주인공이 트럼펫 연주자임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노래의 가사로 그 장면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고, 상황과 곡의 분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더욱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쳇 베이커가 “Born to be blue”를 외치며 흘러나오는 “Born to be blue”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쳇 베이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오수진 “음악 극적 특성이 강조된 고전영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87-95, 2013.
[2] 최유미, 이승연 “범죄영화「이중배상」속 테마음악의 기능적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48-56, 2015.
[3] 권민서, 이승연 “서사 음악에서의 인물묘사와 음악적 특징”,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pp.147-148, 2014.
[4] 황진희, 이승연 “A Study on the Rhythm Structure of A Psychological Film and Its Music : Focusing on the film, 『The Hour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vol.96, p.114-119, 2015.